

‘골프황제’ 우즈 시대 막내렸다

사생활 발목… 281주만에 세계 정상자리 내줘

지난해 유럽투어 상금왕 웨스트우드 1위 등극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35·미국)가 5년 넘게 지켜온 세계 랭킹 1위 자리에서 내려왔다.

2005년 6월12일부터 281주간 세계 1위를 지켜온 우즈는 1일 새로 발표된 세계 랭킹에서 8.29점을 받은 리 웨스트우드(37·잉글랜드)에게 밀려 2위(8.13점)로 한 계단 내려섰다.

지난해 11월 우즈가 호주 마스터스에서 우승했을 때만 해도 우즈는 랭킹 포인트 16, 17점으로 선두였고, 5위였던 웨스트우드는 5.92점으로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이었으나 불과 1년도 되지 않아 웨스트우드가 우즈를 앞질렀다.

2009년 11월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드 자택 근처에서 의문의 교통사고를 냈기 여성 편력이 잇따라 불거지며 골프와 인생 모두에서 내리막을 걸어온 우즈는 올해 한 번도 우승을 차지하지 못하고 이운까지 했다. 바람을 피운 상대 여성이나 하나님 드러나며 무기한 골프 중단을 선언했던 우즈는 4월 마스터스부터 9월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BMW 챔피언십까지 12개 대회에 출전했지만 최고 성적은 마스터스와 US오픈 공동 4위에 그쳤다.

새로운 세계 1위 웨스트우드는 올해 마스

터스와 브리티시오픈에서 준우승을 차지했으며 6월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세인트 주드 클래식에서도 우승했다.

지난해 유럽프로골프투어 상금 1위, 올해의 선수 등 주요 부문을 훑어보니 유럽투어에서만 통산 20승을 올렸다. PGA 투어에서 2승, 일본 무대에서도 네 차례 우승컵을 가져왔다.

특히 웨스트우드는 2001년 세계 4위에서 2003년 5월 말 266위까지 내려가는 부진을 겪다가 다시 1위로 치고 올라오는 저력을 보여줬다.

1986년 남자골프 세계 랭킹 시스템이 도입된 이후 웨스트우드는 베른하르트 랑거(독일), 세베 바예스테로스(스페인), 그레노먼(호주), 닉 팔도(잉글랜드), 이언 우스남(웨일스), 프레드 커플스(미국), 닉 프라이스(짐바브웨), 톰 레먼(미국), 어니 엘스(남아공), 데이비드 뮤릴(미국), 비제이 싱(페지), 우즈에 이어 13번째로 세계 1위에 오른 선수가 됐다.

웨스트우드는 “누구나 세계 최고가 되는 것을 꿈꾸 것이다. 세계 1위에 오른 것은 내생에 최고의 목표 달성을이다”라며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내가 지구 상에서 가장 골프를 잘 치는 사람”이라고 기뻐했다. /연합뉴스



지난달 열린 2010 라이더컵 골프대회에서 타이거 우즈(왼쪽)와 리 웨스트우드가 리운딩을 한 후 함께 걷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 남자 유도 세계단체선수권 동메달

남자 유도 대표팀이 2010 세계단체선수권 대회에서 동메달을 차지했다.

대표팀은 1일(한국시간) 새벽 터키 안탈리아에서 치러진 대회 남자부 동메달 결정전에서 프랑스를 4-1로 물리치고 동메달을 차지했다. <사진> 1회전에서 그루지야를 3-2로 물리친 대표팀은 준결승전에서 일본에

2-3으로 패해 동메달 결정전으로 밀려 프랑스와 대결을 펼쳤다.

66kg 이하급의 조준호(용인대)가 우나리 플로링을 압이치기 한판승으로 꺾고 기선을 제압한 한국은 73kg 이하급의 방귀민(국군체육부대)이 판정승을 거두며 승기를 잡았다.

/연합뉴스

AG대표 차출 거부 여자농구 파행 수습 국면

kdb생명 신정자 등 선수 3명 합류

일부 구단의 국가대표 선수 차출 거부로 훈련에 차출 거부로 훈련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신정자, 김보미, 이경은의 대표팀 차출을 거부해온 여자프로농구 구리 kdb 생명은 1일 대한농구협회에 “세 명을 대표팀으로 보내기로 했다”고 통보했다.

kdb생명은 “와 상위권 팀인 신한은 행, 삼성생명은 대표 선수가 2명밖에 없고 우리 팀은 3명인지 명확한 기준을 밝혀달라”며 지난달 27일 광저우 아시안 게임 대표팀 소집에 응하지 않았다. 12명 가운데 kdb생명 소속 3명이 훈련에 불참하고 부천 신세계의 김지윤도 부상으로 이유로 대표팀의 부산 전지훈련에 빠졌다.

지면서 대표팀은 훈련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도인 8명 중에서도 키 202cm로 최장신인 하은주(신한은행)와 지난달 체코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무릎을 다친 박정은(삼성생명)이 정상적인 훈련을 소화하지 못하는 등 파행이 계속되자 임달식(신한은행) 대표팀 감독은 지난달 31일 “더 이상 부산에 머무는 것이 의미가 없다. 차라리 소속팀에 보내 훈련을 하게 하는 것이 낫다”며 부산 전지훈련 중단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kdb생명 선수 세 명이 추가로 합류하게 되면서 일단 훈련 재개 가능성이 커졌다. kdb생명 선수 세 명이 추가로 합류하게 되면서 일단 훈련 재개 가능성이 커졌다. /연합뉴스

11월 9일(토)

▲광주도지사상(화상) 경남 학현 가야산(마립상) 11월 9일(토)

11월 9일(토) 10:00~12:00 대전광역시 광주도지사상(화상) 경기

*다음카페 : 광주도지사상(화상)

*다음카페 : 광주도지사상(화상)</p